

# CKU치위생소식

E.YO NEWS - vol.2

2021년 5월

발행처 : 가톨릭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  
홍보동아리 이.요 [E.YO]



(스승의 날을 맞아 제자 일동으로 교수님께 선물한 카네이션)

## 이달의 소식

- 스승의 날 : 카네이션 그리고 롤링페이퍼
- 어린이 날 : 유치부터 안전하게!
- 성년의 날 : 빛나는 스무 살, 당신의 성년을 축하합니다!
- 경포중 특강 : 의사? 약사? 경포중! 너희 우리가 누군지 아니~
- 학과소개 PPT 경진대회 : 장려상 수상



# 스승의 날

## #카네이션 그리고 롤링페이퍼



5월 15일 스승의 날, 1963년에 시작된 교권 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이다.

처음 시행되었을 때엔 5월 26일이었던 스승의 날은, 1965년도에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이 되어 지금의 스승의 날이 되었다. 스승의 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존경하는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감사인사와 함께 카네이션을 드린다.

누군가를 가르치며 책임진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가는 길의 지팡이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인사를 표현하러 각자의 스승을 찾아간다.

우리 가톨릭관동대의 치위생학과 학생들도 잊지 않고 교수님들께 우리가 갖고 있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렸다.

### ♡19학번 학생들의 마음♡

19학번 학생들은 최다예 교수님, 정유연 교수님, 남궁은정 교수님께 케이크, 꽃, 롤링페이퍼를 준비해 마네킹 실습실에서 전달해 드렸다.



마네킹 실습실에서 이벤트를 무사히 성공한 뒤 행복해하는 학생들과,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웃음을 지어주시는 교수님의 모습 :)



케이크의 컬러를 치과위생사의 상징색인 연보라색으로 한 19학번 학생들의 센스 있는 디테일 케이크 예쁘다(๘' ॱ')



남궁은정 교수님께 따로 꽃과 롤링페이퍼를 전달해드린 모습. 정말 환하게 웃어주셔서 학생들이 보람을 느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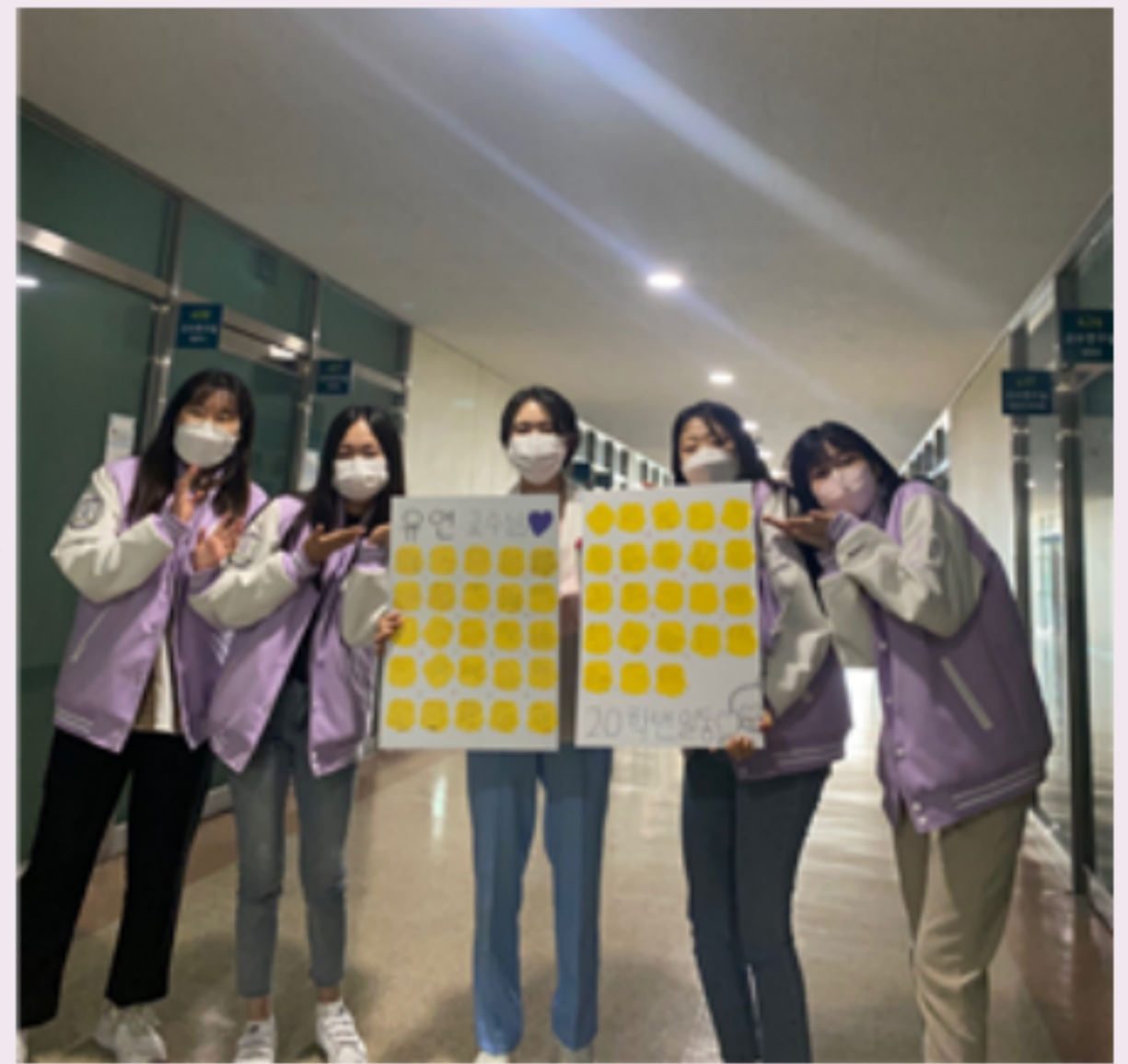


## ♡20학번 학생들의 마음♡

20학번 학생들도 최다예 교수님과 정유연 교수님께 따로 꽃과 롤링페이퍼를 준비해 드렸다.



최다예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가서  
서프라이즈에 성공해 행복해 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환하게 웃어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이다.



정유연 교수님 연구실 앞에서 교수님  
이 나오기를 기다려 서프라이즈에 성  
공한 학생들과 좋아하시며 환하게 웃  
어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이다.



20학번 학생들이 교수님께  
전달해드린 꽃 사진이다.  
\* ~ ~ \*



## ♡21학번 학생들의 마음♡

21학번 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21학번 학생들의 마음 또한 비대면으로 전달하게 되었다. 19학번 학생들이 오작교가 되어 21학번 학생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롤링페이퍼의 내용을 받은 뒤 예쁘게 제작하여 교수님께 전달해 드렸다.

21학번 학생들을 배려해주는 19학번 학생들의 배려심과,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교수님을 화면으로밖에 만나보지 못해 할 말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종이에 빼곡하게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21학번 학생들의 예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분홍색은 19학번 학생들의 마음,  
노란색과 민트색이 21학번  
학생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예쁜 마음들이 모여  
강릉시의 봄 날씨가 따듯했던 것 같다.

다음 스승의 날엔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여  
교수님을 뵈 수 있기를...

# 어린이 날

## # 유치부터 안전하게!



지난 5일, 많은 어린이들의 행복이 가득한 ‘어린이 날’을 맞이하였다. 어린이 날은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옹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5일을 어린이 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 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

특히 어린이날에는 놀이공원, 테마파크, 국립공원 등에는 가족 단위 방문이 성행한다. 이때 빈번히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있다. 이번 5월 소식지에서는 어린이 날과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대처 방법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유치의 관리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 # 어린이날 안전사고 치아외상 대처 방법

집을 벗어난 여행지는 설렘을 주지만 그만큼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낯선 환경이기도 하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의 연령대의 아이들은 뛰어다니기를 좋아하여 쉽게 넘어지기도 하며 이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치아외상이다.

치아외상은 치아가 외부의 충격으로 치아가 부러지거나 치아가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빠른 시간내에 병원을 방문한다면 대부분의 치아를 보존할 수 있다.

### 치아 파절시 대처 방법



1. 잇몸이나 입술에 출혈이 있다면 거즈나 솜을 물어 지혈한다.
2. 치아가 부러졌다면 신경이 노출되어 통증과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즉시 치과에 내원해야 한다.
3. 치아가 빠졌다면 생리식염수, 우유 등에 넣어 보관하여 신속하게 치과에 내원해야 한다.
4. 빠진 치아 보관시에 뿌리쪽을 잡지 말고 씹는 면을 잡도록 하여 이물질이 묻었다고 해서 털거나 닦지 말고 잘 보관해야 한다.
5. 빠진 치아를 재이식하려면 한 시간 이내에 치과에 방문해야 다시 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모든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존재 하듯이 치아 외상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영구치가 완전히 빠진 경우에는 5분 이내에 즉시 재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치아를 제자리에 넣지 못하더라도 우유, 식염수, 입안 등에 보관해 빠르게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치아가 빠지거나 부러지지 않아도 무언가를 씹는 과정에서 외상치아가 닿는 경우 동통과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또한 치과를 방문하여 빠르게 위치를 다시 잡아주고 고정해줘야 한다.



치아 외상으로 병원을 찾은 초등학생 어린이.  
상악 우측 영구치 앞니가 부러져 레진으로 치료함



치아 외상으로 병원을 찾은 학령 전 어린이.  
상악 우측 유치 가운데 앞니의 치아 위치 변화가 관찰됨

출처: [https://jhealthmedia.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22132](https://jhealthmedia.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22132)

# # 어린이날 안전사고 치아외상 대처 방법

유치 외상의 대처법은 영구치와 동일하지만 영구치와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유치의 뿌리와 영구치의 싹은 매우 가깝게 위치 하기 때문에 유치 외상 시에는 영구치의 손상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유치 외상으로 후속 영구치 싹의 위치가 변한다거나, 맹출 이상, 반점 형성과 같은 형태 이상등의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려면 방사선 촬영을 토대로 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이다, 또한 치아 뿌리 쪽의 염증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을 권장한다.

## 치아를 지켜주세요!

치아를 다친 후 무엇을 해야할 지 알면,  
여러분의 **영구치 중 대부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치아가 부러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치아조각을 찾으세요.    2. 조각은 붙일 수 있어요.    3. 즉시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으세요.

**치아가 빠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치아조각을 찾으세요.    2. 치아아리를 잡으세요.    3. 차가운 수돗물로 가볍게 치아를 씻으세요 (배수구는 막으세요)

4. 다음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세요



4-a. 치아를 원래 위치에 넣으세요. (재식하세요)



4-b. 우유나 생리식염수가 담긴 컵에 담으세요.



4-c. 우유를 구할 수 없을 때는 빵과 잇몸 사이에 치아를 머금으세요.



5. 2시간 이내에 즉시 전문적인 치과치료를 받으세요.




UNIVERSIDAD DE VALPARAISO CHILE

(세계치아외상학회 홈페이지에 한글로 통역돼 있는 '치아를 지켜주세요' 한글포스터)

## “소아치과치료, 유치 치료꼭 해야하나요?”

“치과에 갔더니 유치랑 영구치 치료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빠질 치아인데,, 꼭 치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소아치과에서 일할때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의심하시는 부분이다. 유치는 해부학적 형태가 영구치와 다를 뿐만 아니라 생리학적으로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장 현저한 차이점은 계승치가 발육함에 따라 치근이 생리적으로 흡수되어 영구치와 교환되는 것으로서 교환시기와 순서는 영구치열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치과치료의 목적은 치아위식 등의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들 질환의 치료와 예방을 실시하면서 건전한 영구치열이 완성될때까지 관리하는 것이 소아치과치료의 목적이다.

영구치는 유치의 치근을 흡수하여 성장하고 맹출한다. 이때 조금의 염증이나 세균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하게도 영구치는 비정상적으로 맹출하게 된다. 단순히 계승치에 염증이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계승치 자체가 똑바로 올라오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올라오려고 한다. 이것을 이소맹출, 변위맹출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정해진 위치가 아닌 다른방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얘기한다. 이처럼 유치에 충치가 생기면 충치가 더 깊게 진행하지 못하게, 유치 아래에 있는 영구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치료를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또한 유치를 무사히 보낸다 해도 갓 맹출한 영구치의 관리도 필요하다. 갓 맹출한 치아일수록 법랑질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충치에 더 취약하다. 또 구치부 경우는 형태상 깊게 파인 골짜기와 홈이 있는데 갓 맹출한 구치부 치아일수록 이 골짜기와 홈이 더 날카롭고 좁다. 따라서 이시기에 치아홈메우기로 충치를 미리 예방해 줘야한다.



유치 앞니 충전 치료 전/후 사진

# 치아 맹출 중인 예민한 자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치는 생후 6개월 늦으면 12개월 부터 맹출하기 시작한다. 이때 아기는 불안감을 느껴 손가락을 빠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침을 자주 흘리고 식욕이 줄어들기도 한다. 이때 아기의 잇몸을 보면 부어있고 딱딱한 것이 만져질 것이다.

이 때문에 아기는 잠을 잘 못 자거나 짜증이 늘어난다. 이유없이 자주 울거나 보채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이얹이’ 라고 한다. 아기의 치아가 잇몸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이유없이 불안해지고 예민해지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이때는 물에 적신 거즈로 잇몸 부위를 닦아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통증이 줄어들고 치아가 더 잘 맹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치발기나 공갈 젓꼭지를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차갑게 해서 물려주면 냉 찜질 효과로 부어 있던 잇몸을 찜질해주며 통증을 줄일 수 있다.

### 맹출 순서 & 시기

대부분의 아기가 강하고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인생을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은 아기의 치아가 그 상태로 유지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기의 첫니가 나는 것은 보통 6-10개월입니다.  
만 1세를 전후하여 위아래 앞니가 모두 나옵니다.

아래 앞니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어머들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 느린 아이도, 조금 빠른 아이도 있는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시기에 따른 유치 맹출 순서

22개월~30개월이면 모든 젓니(유치)가 잇몸에 자리잡습니다.

유치 맹출시기 그림

출처: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27>

## 치아 맹출 중인 예민한 자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지난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몇 가지의 치아 지식을 알아보았다.

과거에는 유치가 어차피 빠질 치아라는 인식이 강해 유치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에는 그런 인식이 점점 개선되어 나가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인식을 개선하려면 소아치과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날 때도 빠질 때도 관리가 필요한 것이 유치이다. 유치를 잘 관리한다면 부정교합은 물론 많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가지런한 치아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는 스스로 치아를 관리할 수 없는 만큼 주위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또 가정에서의 관심 만큼 치과 정기검진도 중요한데, 어린이 정기검진은 충치 예방 및 충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3~6개월 마다 정기검진이 필요하다.

충치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여 건강한 치아와 밝은 미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자 :)

이 세상 모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지길 기원합니다 (◡̈)~



# 성년의 날

## # 빛나는 스무 살, 당신의 성년을 축하합니다!



지난 17일, 많은 20대들이 생애 단 한 번뿐인 ‘성년의 날’을 맞이했다. 성년의 날은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성년의 날을 맞아 성인이 된 가톨릭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 21학번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가톨릭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 21학번 학우들의 이야기>

Q. 본인이 생각하는 성년의 날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21학번 인도윤: 제가 생각하는 성년의 날은 진정한 어른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어른이 된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나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모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며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날이고, 더 성숙해진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A. 21학번 김혜민: 제가 생각하는 성년의 날이란 진짜 어른이 되었다고 축하받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어른이 됨으로써 세상에 한 발짝 더 나아감과 더불어, 그 만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A. 21 김서희: 제가 생각하는 성년의 날은 이제 성년이 된 만큼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살아가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남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 모두 성년이 된 이 시기는, 학교를 다니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지녔던 청소년기와는 달리, 생활 습관이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성인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성인기에는 개인 상황에 따라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치과 검진이나, 치아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식사 후 꼼꼼한 양치질이나,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연식 위주의 식습관들은 충치 발생률을 낮추어 건강한 치아 관리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성인이 된 지금, 스스로가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치아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21학번 학우들의 앞으로의 빛날 앞날을 응원합니다 :)

# 의사? 약사? 경포중! 너희 우리가 누군지 아니~

2021년 4월 28일, 중학생들의 해맑은 웃음처럼 해가 짹짹하고 더웠던 날, 경포중에서 진로의 날을 맞아 학과 체험 프로그램을 위해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생들을 초청 받았다.

그곳에 특별한 학과가 출동했는데, 바로 우리 치위생학과 대표로 3학년 재학 중인 김서연 학우와 박예진 학우가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



경포중학교의 외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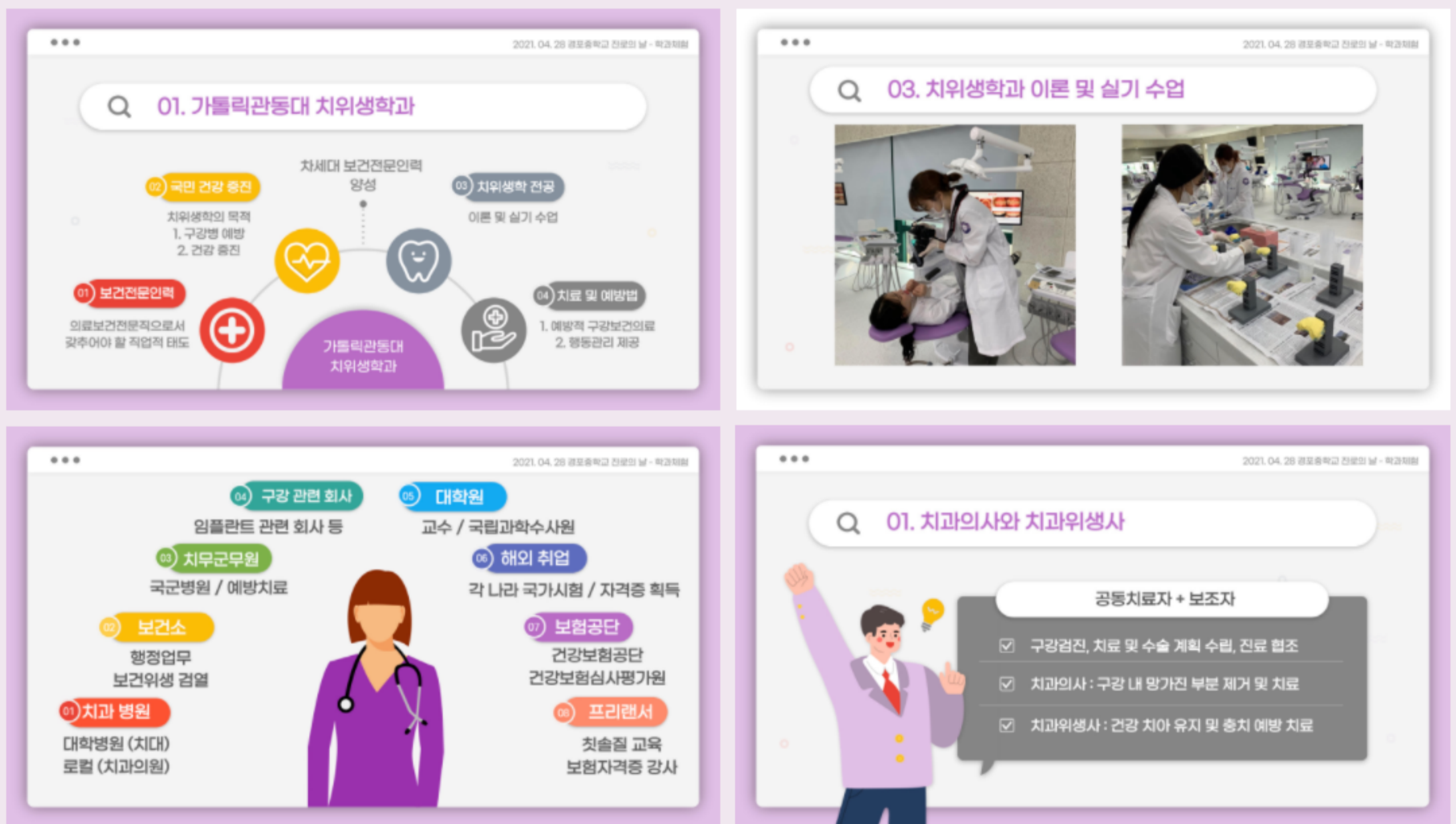
경포중학교의 내부 모습

오랜만에 중학교에 오니 감회가 새로웠고 아직도 학생이지만, 작아진 건물들고 생글생글 웃으며 인사해주는 학생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먼저, 경포중학교 ‘진로실’에서 마치 나의 담임선생님이 생각나는 정겨운 인상의 선생님 한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특히 어린 학생들부터 많은 인원들이 모여있는 학교에서는 코로나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하므로 들어가자마자 손소독과 열 체크를 진행하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커피와 간식거리를 하나씩 꼭 나눠주시며 긴장한 대표들을 위한 간단한 팁들과 함께 가톨릭관동대학교 각 학과 대표들이 담당할 반을 소개해주셨다. 총 2교시 동안 두 반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맡은 반은 3학년 5반과 6반이었다. 은근한 긴장감이 감도는 진로실에서 각 학과 대표들은 자신들이 준비해온 학과 소개를 떠올리며 시작 종이 치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소리가 울리고 예전이나 들어보던 떠들썩한 목소리들과 여기저기 바빠 움직이는 발소리들이 들렸다. 오픈가운을 갖춰입고 계단을 올라가 반을 찾아다니니 바쁘게 움직이던 발걸음들이 느려지면서 복도에는 우리를 신기해하는 눈빛들과 누군지 궁금해하는 웅성거림이 가득했다.

어느 반마다 꼭 컴퓨터와 큰 스크린 연결이 잘 안되는 반이 있다^^: 하필 첫 반에서 연결이 쉽지 않은 교실을 만나 우왕좌왕 하기도 하고 기대하고 시큰둥한 눈빛들을 견디느라 진땀을 뺐다. 그래도 어떻게든 준비해온 피피티를 다 보여주고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노력하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는 친구들도 보여 마음이 놓였다.



피피티 속에는 치과위생사란 정확히 어떤 직업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행하는지, 치위생학과는 어떤 학과이며 무엇을 배우는지, 졸업 후 진로 및 직업 전망 등 직업과 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현실적인 조언과 영상을 통해 현직 치과위생사들의 하루를 담았다. 중학생들에게 흥미있는 주제가 아니라면 집중도가 오래가기 어렵고 처음 접하는 직업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최대한 눈높이를 맞춰 어려운 말들을 모두 쉬운 말로 바꿔가며 제작하였다.

1교시 때의 경험과 쉬는시간에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뵐요!” 말을 걸어주던 학생들 덕분에 긴장도 많이 풀려 2교시는 더 수월하고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대답을 잘 해주던 여학생 삼총사들 덕분에 학생들 반응도 더 즐겁고 딱딱한 피피티 설명보다는 질문하고 듣고, 경험을 이야기하는 소통을 할 수 있어 아쉬움 없이 만족스러웠다.

담임선생님이 아닌 아마 큰 어른처럼 느껴질 대학생들이 와서 해주는 경험없는 설명이 조금은 미숙하게 느껴지기도, 지루했을 법도 한데, 참고 잘 들어준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 끝날 때, 학과장 최다예 교수님의 지원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치실을 반가움과 고마움을 담아 한명 한명 전달해주었다.



치위생학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모습



치위생학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모습

걱정과 달리, 시간은 생각보다 훌쩍 지나고 아이들의 지루해하면서도 흥미로움에 빛나는 눈빛이 우리에게 신선한 경험과 뿌듯함을 전해주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교문을 벗어나려는 순간, 어떤 학생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김서연 선생님~, 박예진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큰 소리로 불러준 탓에 겨우 1시간 반동안 본 아이들인데 금방 정이라도 생길 것 같았고 중학생들의 힘찬 에너지를 가득 전달 받을 수 있어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다. 우리의 대학생할 중 이런 좋은 기회를 경험할 수 있어 감사하고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 중 한 순간일 것 같다:)



## # 짧은 인터뷰

Q.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들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

A. 아무래도 오픈가운을 입고 가니 많은 시선을 받았는데, 두 번째 반에서 제가 “저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 하고 물어보니 “약사,,?”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ㅎㅎ 우리 동기들을 보면서 생각도 못해봤는데, 학생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귀엽고 재밌었어요.

Q.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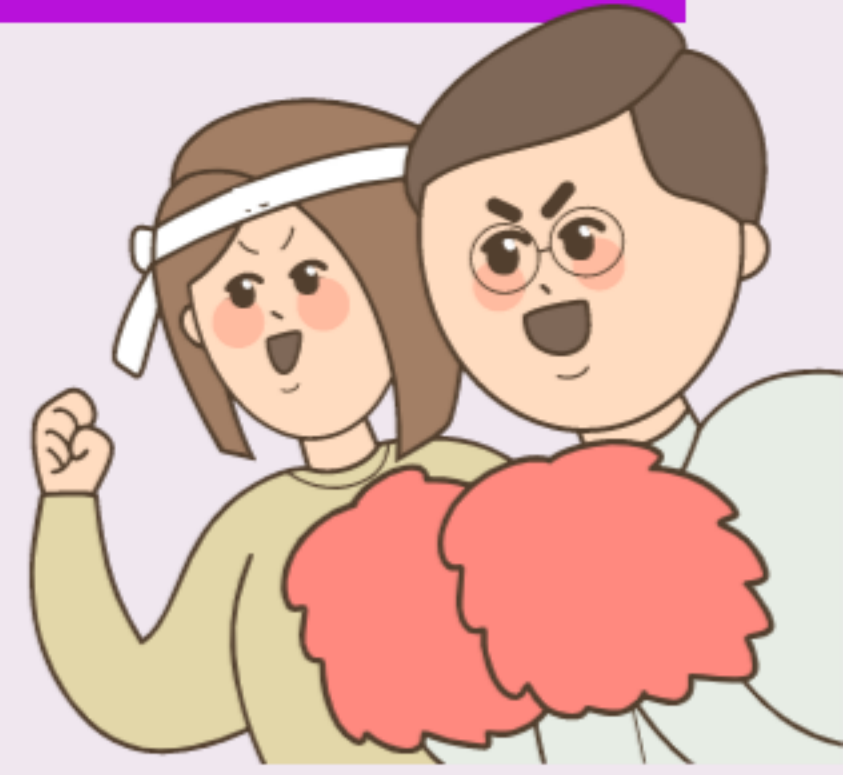
A. 정말 정말 쉽고 귀엽게 피피티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에게는 조금 뻑뻑하게 느껴졌는지 지루해서 창문 밖을 보거나 졸고있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πππ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욕심내서 질문하면 또 예쁘게 대답해주던 몇몇 학생들이 아직도 자리까지 기억에 납니다 :) ♡

Q. 내년, 내후년 후배들이 치위생학과 대표로 다시 가게 된다면 주고 싶은 꿀팁은 ?

A. 최대한 널널하고 쉽게 준비해가는 것이 꿀팁인 것 같아요. 진로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중학생들의 집중도가 그리 길지 않다고 해요 ㅎㅎ 모두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우리가 어떤 학과인지, 어떤 것을 하는지 중간중간 유튜브에서 현직 치위생사의 브이로그를 찾거나 우리의 실습영상을 보여줄 수 있으면 긴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

아 그리고 최대한 멀리있는 학생들까지 한명 한명 시선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다보면 학생들도 눈 마주칠 때마다 끄덕여주고 억지로라도 들어주려 노력해주는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꼭 후배들에게도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미래의 우리 후배들에게 미리 파이팅 ! ♡

# #학과소개 PPT경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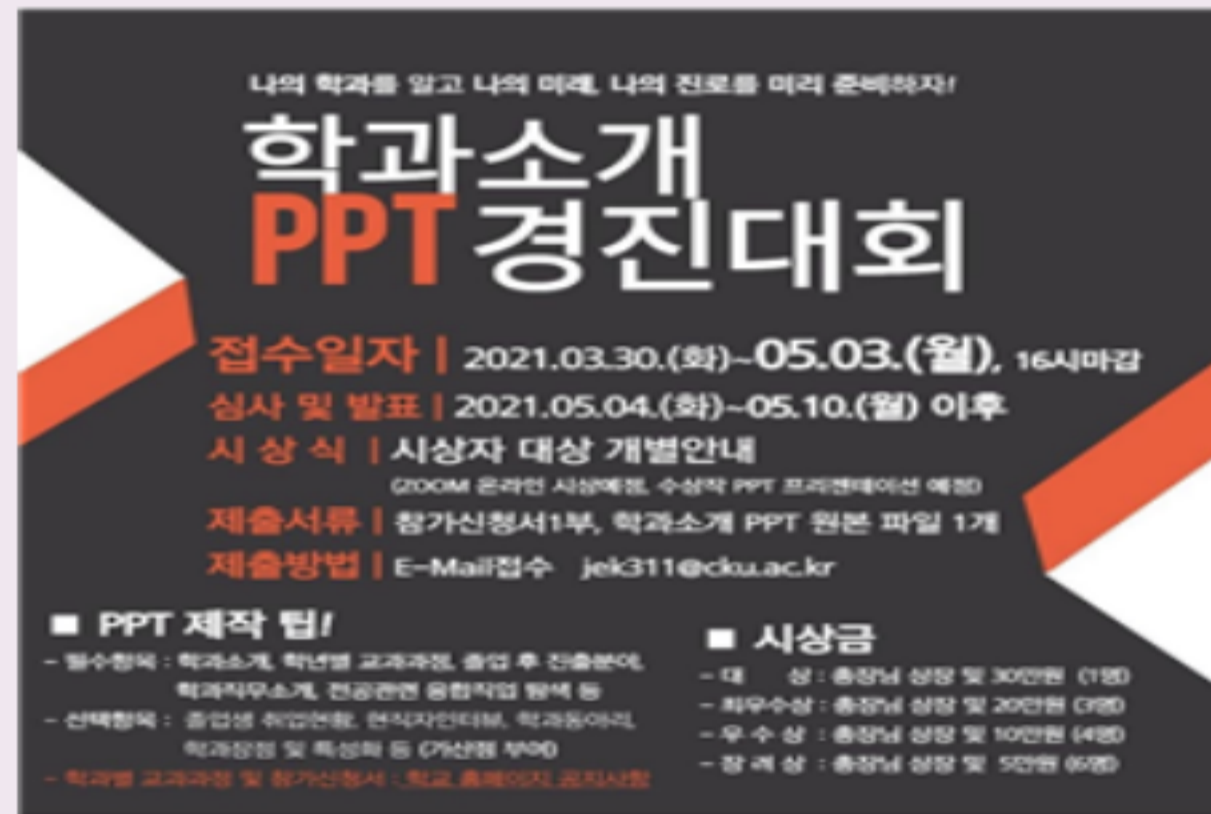


## 학과소개 PPT경진대회란?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코로나 19 상황 속 재학생들의 자발적인 학과 진로 탐색을 유도하여 진로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학과소개 PPT 경진대회를 진행하였다.

가톨릭관동대학교 1~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팀구성(2~5명 이내)로 참가 자격이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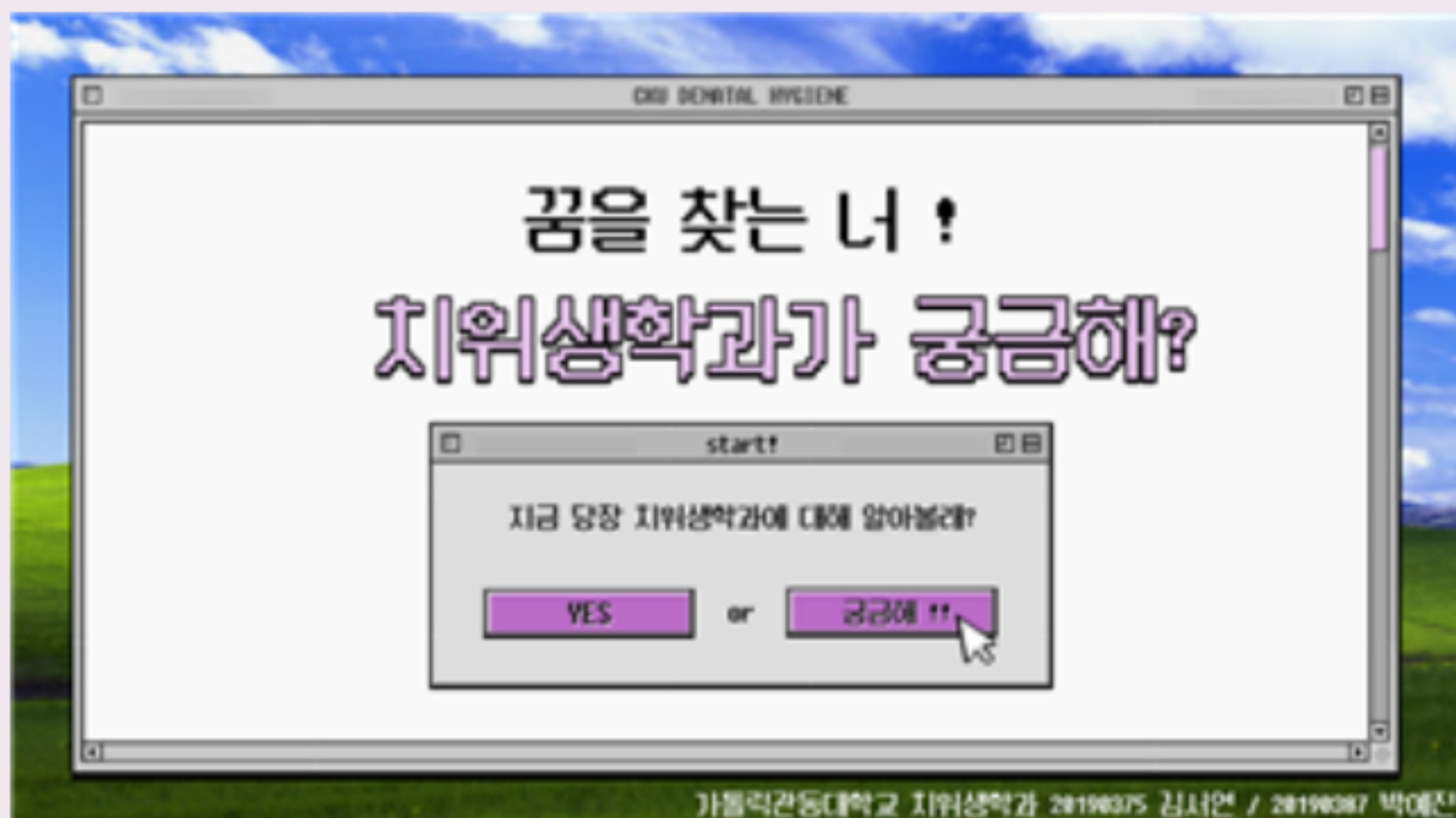
2021년 03월 31일부터 2021년 05월 03일까지의 기간을 두고 대회를 진행하였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에서는 3학년 김서연, 박예진 / 3학년 권미르 / 3학년 문수민 학생이 참가하여 김서연, 박예진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경진대회 참가 PPT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김서연, 박예진 학생 피피티 소개 및 인터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다른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줬고, 더 구체적인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소개했다. 치위생학과에 어떤 학생이 적합한지 소개했다. 가톨릭관동대 치위생학과에 대해 소개했고 학년별, 학기별 이론 및 실기 수업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며 소개했다. 가톨릭관동대 치위생학과 교수님들, 실습실을 소개했다. 가톨릭관동대 치위생학과의 과동아리들에 대해 소개했다. 졸업한 치과위생사들의 인터뷰로 실제 임상 생활이나 병원 생활을 소개했다. 졸업 후 다양한 직업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에 대해 소개했다. 우리 학과의 매력 포인트 장점들을 소개했다.

### <김서연, 박예진 학생 인터뷰>

#### 3학년 김서연(장려상 수상)

19년도 신설학과 치위생학과는 이번 21학번 후배님들의 입학까지 학과 홍보자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치위생학과의 현 학회장으로서 그리고 학과를 애정하는 학생으로서 가톨릭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에 관심있는 입시생, 신입생, 타대학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선배의 마음으로 우리 학과를 자랑하고 싶어 피피티 경진대회에 박예진 동기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

경진대회 얼마전, 치위생학과 대표로 박예진 동기와 '2021 경포중 진로체험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치과위생사와 치위생학과에 대해 소개해주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피피티 경진대회 또한 홍보자료 사용 주대상이 입시생들이었기에 이날 사용한 피피티를 발전시켜 만들었습니다. 10대들과 20대 초반 학생들을 주타겟으로 하여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홍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고, 8비트 게임 테마를 바탕으로 귀여운 아이콘과 말투를 사용해 컴퓨터 게임하듯이 질문하고 설명해주는 컨셉으로 피피티를 제작하였습니다.

피피티에는 치과위생사의 역할, 치위생학과에서 배우는 것, 치위생학과 입학 정보, 우리 학과 실습실 및 실습복, 졸업 후 취업 정보 등을 중심으로 꼼꼼하지만 흥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이 피피티는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홍보하고 누구든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학과를 정말 애정하는 학생으로서, 학교를 떠나기 전까지 학생들과 학과 홍보에 더욱 관심을 갖고 힘써서 신설과여도 번듯한 역사와 자부심을 갖을 수 있는 치위생학과임을 알리고 싶습니다 ♥

### 3학년 박예진 (장려상 수상)

처음에 ‘학과 소개 피피티 경진대회’가 있다는 사실을 교수님을 통해 알았어요 :) 제가 운영하는 홍보 동아리 ‘이요’랑 특색이 잘 맞을 거 같다고 동아리에서 해보는 게 어떨까요고 추천해주셨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쉽게도 인원 제한이 있더라고요 T\_T 마침 경포중 진로의 날 때도 그렇고 호흡을 몇 번 맞춰 본 서연언니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희 둘 다 바빠서 만들 날만 맞추다가 결국엔 하루 이틀만에 다 끝냈어요 ㅎㅎ 물론 전날엔 밤도 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결과물이 꽤 괜찮았고, ‘이거 대상인데?’ 라고 생각하며 수상 발표날만 손 꼽아서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발표날 하루가 미뤄져서 더 마음이 조마조마 했어요.

결과는 ‘장려상’ 이였고 대상을 기대했던 저에겐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솔직히 너무 기뻐했어요! 가족이나 친구 여기저기 자랑도 했답니다 :) 그 동안 크고 작게 피피티나 제작물을 만든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경험들이 헛되진 않았구나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작고 소중한 상금 5만원 가지고 언니랑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야겠어요:)



## # 권미르 학생 피피티 소개 및 인터뷰



치위생학과의 교육 목표와 치위생학과의 주요 직무를 소개했고, 가톨릭관동대 치위생학과 교수님 소개와 전공동아리 또는 학년별 교과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실습실 및 실습 내용을 소개했고 자대병원 견학과 Vcep 프로그램 특강 또는 치위생 기자단의 교외 활동을 소개했다. 졸업 후 다양한 진출분야 소개 또는 전공융합직업탐색으로 3가지 분류로 나뉘진 경우에 따라서 직업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 <권미르 학생 인터뷰>

치위생학과 학생회로 활동하면서 많은 예비 대학생이나 타과 학생들이 치위생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졸업 후 다양한 진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껴서 치위생학과만의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향후 교내 홍보자료로 활용되길 희망하는 마음에 가톨릭관동대학교 학과소개 피피티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학과소개 피피티에는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학년별 교과과정 및 졸업 후 진출 분야, 학과 직무 소개, 전공 융합 직업탐색, 학과 동아리, 마지막으로 학과 동아리 및 특성화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처럼 학과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치위생학과 학생으로서의 3년을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느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1기 치위생학과 학생으로서 동기들과 함께 남은 학과 생활도 잘 닦아나가 치위생학과를 희망하는 예비 대학생 및 타과 학생들 모두 가톨릭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 # 문수민 학생 피피티 소개 및 인터뷰



치위생학과의 정의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가톨릭관동대 치위생학과 교수님들과 교육 목표 및 학년별 교육 과정을 소개했으며 세부목표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치위생학과의 장점과 특성에 대해 소개했다. 치위생학과의 진출분야에 따라 다양한 직업을 소개했고 치위생 관련된 융합 직업 탐색하며 2가지 분류로 나눠 소개했다. 치위생학과와 관련된 자격증과 가톨릭관동대 치위생학과의 3개의 동아리를 소개했다. 치위생학과의 재학생으로써 tip을 주며 소개했다.

### <문수민 학생 인터뷰>

학과 소개 ppt 경진대회는 제가 '치위생학과'라는 저의 전공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됐던 대회였습니다.

특히나 아직 4학년 졸업반과 졸업생이 없는 저희 학교 치위생학과의 경우, 더더욱이 개인의 학과에 대한 이해도나 졸업 후 진로 방향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학과 소개 ppt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나아갈 수 있는 진로 방향성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었고 당장 내년에 배울 과목에 대해서도 짚어봄으로써 학과에 대한 이해도 또한 넓힐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학과 학생이든 본인의 전공에 대한 이해도는 곧 학과에 대한 애정도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경진대회 준비는 저에게 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줌과 동시에 조금 더 제 전공에 애정과 욕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다음에 다시 만나요~!



## 5월 CKU소식 이요 편집진

스승의 날 - 김민재, 김상현, 박예원

어린이 날 - 박상아, 최효린, 황수빈, 황유정

성년의 날 - 김서희, 이가영, 이하윤

경포중 특강 - 김서연, 박예진

학과소개 PPT 경진대회 - 권미르, 김혜민, 박정은

편집 - 심재연, 전희율, 조영민

### 기사 제보 받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평소 하고 있던 본인의 생각, 실습 소감,  
자기자랑 등등!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

제보: 010 2959 9089 이요 대표 박예진